



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미래경제단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미래경제단 새바람'

### 정세균 전 총리 응원 전국 조직 속속 결합 '활력소' 민주당당서 '전북 미래경제단' 출범... 임명장 수여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미래경제단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중앙 선대위 상임고문 및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가 발벗고 나선 미래경제단이 전국 조직을 속속 결합시키는 등 주춤거리는 선대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미래경제단은 현재 ▲미래경제단 8천여명, ▲미래경제단 위원회 90여개 5,500명, ▲미래경제단 조직특보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미래경제단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황실장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특히, 전북 미래경제단은 안호영 미래경제총괄단장이 주도적으로 특보를 모집해 전국 최대 조직인 1만여명이 조직화됐으며, 현장 임명장 수여식은 300여명이 참석해 경건 재창출을 결의했다.

## '차기 정부 청년기회국이 조성 일조'

### 이재명 후보 지지 청년 소통 플랫폼, 전주 '청출어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소통 플랫폼 '청년이다(利多)'가 6일 전주시 완산구 오거리 소극장에서 전주 '청출어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5개 광역시별로 진행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독려, 현실 정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정세균 전 총리의 격려사와 안호영 조직본부 수석본부장 및 미래경제총괄단장의 출범사 김민철 조직본부 부분부장, 민병덕 조직상

가수 리아와 인디밴드 등의 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전주 행사에는 청년 7명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총리,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시 병),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 참석해 청년들이 접하는 문제들을 정취하고 현실 정치를 뛰고 있는 정치인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안호영 의원, 도내 청년 예술인과 정책간담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일 전주 창작소극장을 찾아 도내 청년 문화예술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안호영과 함께하는 청춘 대길'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 참여해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 전북도내 문화예술계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환 선대위와 정책협약을 맺은 예술인 연대 상임고문인 연극배우 박준석 씨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을 소개했다. 그 중 특히, ▲국가재정대비 문화예산 2.5%까지 대폭 확충 ▲문화예술기관 채용시 개방형 공모제 확대 등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노력'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위원회 출범

20대 대선 선대위 장애인위원회의 전국 조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북 장애인위원회의 발대식이 개최됐다. 전북 발대식에는 중앙선대위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희식), 김성주 국회의원(전북도당 위원장)과 전북의 장애인 관련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 "지속가능 새만금 개발, 정답은 해수유통"

### 김윤덕 의원, "그린수소 등 신산업 묶는 경제 블록화 통해 전북경제 체질개선 필요"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의원은 지난 4일 "에너지대 전환시대에 발맞춰 각각의 지자체를 그린 수소 등 하나의 신산업으로 묶는 경제 블록화를 통한 전북 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하나의 지자체만으로 신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1개 산업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블록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것이 국내 국외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김윤덕 의원은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미래세대에 쓸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각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화를 통해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등 신산업 선점을 통한 전북의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일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해수유통 문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 자

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북의 경제 블록화를 위해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도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미래세대에 쓸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각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화를 통해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등 신산업 선점을 통한 전북의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추경,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돼야"

### 양경숙 의원, "자영업자 영입난 속 금리인상 앞친 데 댈것 격" 충남기 경제부총리, 고물가 고공행진에 "송구하다" 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4일 충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를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전하고, 추경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포기하고 대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앞친 데 댈것 격이며, 파산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살리기 위해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 규모는 GDP 대비 6.4%로 미국 26.5%, 일본 16.7%, 독일 15.3%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IMF 당시에 공적자금 투입금액이 169조 원이고 미회수 금액이 50조 원을 넘는 데, 과거 경제위기 당시 도대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지적됐던 대기업이 포함될 때는 관료들이 과감하게 지원에 나서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

약계층 대상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위기 때 일곱 차례 추경하면서까지 정 부도 노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피해에 완전히 다 복구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재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 "사각지대 없는 추경 지방 균형 고려해야"

### 김수홍 의원, 홍 부총리에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4일 오후 1차 추경 예산안 등을 상정하기 위해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연구개발(R&D), 도시재생까지 5가지 정부 정책이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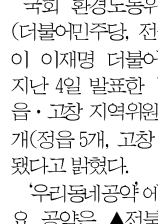
김수홍 의원은 "지금 지방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벌 해서 먹고 살죠, '어디로 떠나야 하나'라는 것을 알고 정책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는 경제성 논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자각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홍 의원은 "청년 문화활동 확대 방안 문제를, 김숙자(36)씨는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문제를, 이정하(43)씨는 지역 소멸 대책 문제를, 정아영(38)씨는 청년 1인 주거 대책 문제를, 조희선(24)씨는 청년복지 문제를, 김상영(41)씨는 육아 돌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요청했으며, 참석한 정치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책대안 등을 제시했다." /유호상기자

## 정읍·고창 11개 공약 '우리동네공약'에 반영

###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노들대교 건설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발표한 '우리동네공약'에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했던 11개(정읍 5개, 고창 6개)의 공약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리동네공약에 반영된 정읍시 주요 공약은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서남권 노인차매안심센터 조성 ▲내장(노리조트) 연결도로 조성 지원 ▲농축산용미생물 아파르트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읍 첨단2단계 산업단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총 5건이다.



윤준병 의원은 "대선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공약까지 꼼꼼히 챙긴 것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이다"며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정읍·고창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읍·고창을 위한 지역 정책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투표율 80%와 득표율 90%의 목표를 초과 달성 할 수 있게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며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